

“드라마·영화, 캐나다서 촬영하세요”

- ‘한-캐나다 시청각 공동제작 협력 협정’ 체결...정부 지원 등 혜택 -

드라마, 영화 등 시청각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과 캐나다 간 공동제작을 위한 국제 협정이 체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캐나다 문화유산부는 22일(현지시각) 캐나다 오타와 문화유산부에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식을 갖고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정식에는 방미통위 고민수 상임위원과 캐나다 문화유산부 앤드류 브라운(Andrew Brown) 차관보가 참석했으며,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애니메이션 등 시청각 콘텐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진행됐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이번 서명은 2017년부터 이어진 긴밀한 협의의 결실로, 양국 콘텐츠 산업 교류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확대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단순한 합의를 넘어 실질적인 공동 제작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지원과 협력을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문화유산부 앤드류 브라운(Andrew Brown) 차관보는 “이번 협정은 ’24~’25 한-캐나다 문화교류의 해 성과를 잇는 중요한 이정표로, 양국 시청각 미디어 산업의 강점과 기술력을 결합해 혁신적이고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강력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서명식을 진행하기 앞서 방미통위는 협정문 서명 이후 절차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캐나다 문화유산부는 서명을 마치면 하월에 상정하고 21일간의 계류 기간을 거친 후 내각 승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비준되며, 시기는 대략 올 가을쯤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방미통위는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특별한 지원 정책이나 별도 펀드 조성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고, 이에 대해 캐나다 문화유산부는 ‘텔레필름 캐나다(Telefilm Canada)’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협정 활용 장려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구체적인 구상과 세부 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에 덧붙여 실무 관리를 담당할 ‘텔레필름 캐나다’에서는 현재 55개 이상의 공동제작 협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50편 이상의 국제 공동 제작물을 인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동제작물로 인증받은 프로젝트는 캐나다의 국내 제작물로 간주돼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서명식을 마치고 고민수 상임위원은 “국내 업체들로부터 언제 협정이 발효돼 공동 제작을 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았다. 한국은 현재 국내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캐나다 측에서도 빨리 비준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엄정환 (02-2110-1331)
		담당자	사무관	이선아 (02-2110-1334)

